



◇군인들에게 자상한 부모이자 불법을 만날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해주기 위해 봉진 선재사랑회, 8월 경기도 양주군 26사단 군법당인 호국 황룡사를 찾은 정순진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미나 총무(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선재사랑회 회원들이 장애인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포장하고 있다.

떡볶이 300인분 만드는 재미 아세요?

따뜻한 음식먹이려 새벽장, 밤샘포장 부지거수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그 지극한 정을 그리워하는 군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상의 짐을 일찍 지게 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모임이 바로 '선재사랑회(회장 정순진)'다.

"작은 힘이지만 평생을 이어나갈 봉사활동"을 서원하며 1992년 창립한 후, 주위 사람들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선재사랑회 회원들은 지난 10년간 알토란같은 사연들을 가꾸어 왔다.

선재사랑회를 탄생시킨 정순진(57, 법명 원만성) 회장은 1992년, 철원의 한 사찰 법회에 참석했다가 법당이 비좁아 군인들이 밖에서 법회를 보는 모습을 보고 군포교를 결심하게 됐다. 군인들에게 합장주를 나눠주는 일로 시작한 군포교 활동은 '작위' 사람들의 참여로 1사단, 28사단의 군법당을 찾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우바리'라 불릴 정도로 역력스러운 정 회장은 1997년 8월 경기도 양주군 26사단 내에 군법당인 '호국 황룡사' 건립과 98년 화재로 훼손됐던 불무리 부대 사단 법당인 일월사의 재건립을 지원했다. 또 2000년에는 21사단 신병교육대 법당인 강원도 양구 도솔암 건립을, 2001년에는 의정부 9200부대 법당 재건축을 지원하기도 했다.

"군인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 병영생활을 더욱 알차게 하도록 돕고 싶어서 군법당을 찾는다"는 정 회장은, 그같은 열성 덕분인지 정 회장 곁에는 항상 뜻을 함께하는 도반들이 있다. 안양에서 3시간을 달려 군법당을 찾는 김미나 총무와 선재사랑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윤정분 보살을 비롯한 25명의 회원들은, 그들의 표현처럼 처음엔 참 '무식하게' 봉사활동을 했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 매주 새벽시장에 나가 떡이더 어묵을 사와 법당 앞에서 300인분의 떡볶이를 만들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삶은 계란 350개의 껍질을 벗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법회 전날이면 가족들과 둘러 앉아 200여 장애인들에게 나눠줄 사랑과 초코파이를 밤새 포장한 날도 부지거수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해 겨울 새벽, 떡과 과일을 잔뜩 준비한 선재사랑회 회원들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길을 나섰다. 부대로 가는 진입로가 차단돼 장애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길을 돌아 나온 이들은 인근 경찰서와 고아원

군포교 앞장서는 '선재 사랑회'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달라지는 군포교의 현실, 불자들의 후원이 결실하다.

을 찾아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기도 했다.

군법당 법회가 일요일이다 보니 회원들 대부분은 가족들의 대소사를 마다하고 먼 길을 달려온다. 심지어 읍지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노 박준수 씨 부부는 군대에 간 둘째 아들의 면회날에도 선재사랑회 회원들과 함께 군법당을 찾았을 정도다.

한달에 한번 수계식... 큰 보람 느끼는 날

'사랑보살'로 불리는 윤현자 회원은 무료급식소 활동과 이동목욕봉사활동, 장학회 운영 등을 두루 거친 베테랑 봉사활동가. '사랑보살'이란 별명은 그가 항상 군법당에 올 때 마다 개인적으로 사랑을 준비해 오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의 복을 비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윤 보살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참진리를 만나게 해주는 일로 생을 회향하고 싶다"고 말한다.

26사단 군법사인 해륜 법사는 "선재사랑회 회원들은 군법당을 '잠시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절처럼 여긴다"며 "비라도 오는 날이면 혹시 비가 새지 않는지 전화해서 확인할 정도"라고 말한다.

그동안 수많은 불사에 앞장 서 온 선재사랑회는 26사단 사단장 감사패와 군승단장 감사패, 군불교위원장 감사패 등 많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있는 훈장은 바로 불자 장병들 수계식 모습이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수계식 때 마다 새롭게 발심하게 되고 군포교의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선재사랑회 회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금은 '선재사랑회'라고 하면 군포교단체로 인식될 정도로 군포교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결코 낙담하지 않지만 매달 회원들의 희비가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의 꿈도 함께 어울려 가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696-066068-02-101 예금주 선재사랑회(정순진)

글: 여수령 기자
사진: 고영배 기자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불가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월성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혹은 일상 생활의 우스개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스님들의 일화와 비유를 동원하는데 그것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보통 사람들도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뒤꽂이를 치는데, 그 충격이 우리의 삶과 사고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 정순진교수(문학평론가)

차례 1장.

그건 틀소에게 물어봐

1. 뭇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 뿔을 뽑아 버려라
3. 바보가 좋다
4. 미녀는 제관에서도 이긴다
5. 본색도유의 보물
6.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7. 남자들 것도 보고 싶다
8. 불길한 징조란 없다
9. 만약 부처님이 흠뻑 미라면?
10. 구름에 달 가듯 스쳐만 가라
11. 생각하지 마라, 미쳐 버린다
12. 행복하게 사는 법
13. 장자부터 죽여라
14. 말할 놈의 도
15. 싸움에 이기면 사랑을 잃는다
16. 여자가 최고!
17. 스님도 울어요?

2장.

그건 스님도 몰라

1. 아이고 스님! 더 어렵네요
2. 스님도 고기 먹나요?
3. 육신쟁이 스님들
4. 육쟁이 스님들
5. 좋은 사람이 아니다
6. 바로 말하면 뱀이라
7.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8. 인간들 사는 꼴이라니
9. 알음알이
10. 말마 더럽다 더러워
11. 야야! 스님들 왜 이러냐?
12. 스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13. 스님! 왜 출가했어요?
14.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
15. 이상하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단니
16. 일류 인간
17. 선과 악
18. 스님 걸치러 왔는데요

3장.

그건 빨간 새가 알아

1. 친구에게
2. 부처님! 저 스님 나빠요
3. 참회! 그 성스러운으로 가는 길
4. 독단부처의 시대
5. 진리는 현실 속에 있다
6. 무상은 속물들이 쓸 말이 아니다
7. 부처는 길을 가르칠 뿐
8. 일체유심조가 뭐야?
9. 그대는 왜 부처가 아닌가요?
10. 지장보살은 지옥 갔다
11. 그러면 부처 아니네 뭐
12. 망상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13. 오솔밭 폐지 않으면 안 된다
14. 용과 뱀-성인과 범부
15. 늑대사자의 본성
16. 부처도 막지 못한 길
17. 포대화상의 보물보따리
18. 야인마(夜人馬)
19. 감사행의 비밀